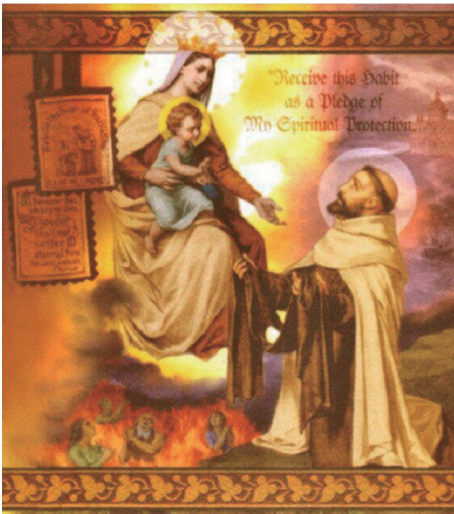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신심단체 성의회(聖衣會)와 매괴회(玫瑰會)의 설립 관련 기록 - 모방 신부 서한에서 확인되다

성의회와 매괴회는 한국천주교회가 인정한 가장 오래된 신심단체입니다. 성의회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함으로써 은사(恩赦)를 얻고자 하는 단체이며, 매괴회는 목주 기도를 통해 신심을 증진시키는 단체입니다. 유럽에서 조직된 두 단체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 설립되어 신자들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교회사학계에서는 1836~1838년 사이에 성의회와 매괴회가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방상근, 『19세기 주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2006, 157~163쪽 참조).



[그림1] 가르멜산의 성모 - 성 시몬 스투에게 나타나 갈색 스카폴라를 주다



[그림2] 신앙선조들의 목주 (절두산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그런데 본 연구소에서 판독·역주하여 간행 준비 중인 ‘모방 신부 서한’에서 성의회·매괴회와 관련된 기록을 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가톨릭출판사, 2007)의 관련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두 단체가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1836년 이후 모방 신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성의회·매괴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성의회·매괴회 관련 자료

현재까지 알려진 성의회에 관한 최초의 한국 기록은 1839년 순교자 남명혁(南明赫, 다미아노)이 자신의 소원으로 “순교한 성의회의 남 다미아노”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입니다.[『기해일기』 19b ;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3권 89하~90상, 69회차 오 바실리오 증언(1884.4.23.)]

매괴회에 대해서는 다블뤼 신부의 1846년 2월 말 서한에 신자들을 성의회와 함께 ‘매괴회’에 입회 시켜야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달레, 『한국천주교회사』(역주본) 하, 94쪽]

이러한 기록을 보면 두 단체의 설립 시기가 비슷했을 것이고, 프랑스 선교사제들이 입국하여 활동하던 시기에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두 단체의 설립 시기를 대략 1836~1838년 사이로 파악했습니다. 이 두 단체는 1839년 천주교 박해 때 타격을 입지만, 1846년 선교사제들에 의해 재정비되면서 신자들의 신심 활동과 공소(公所)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방상근, 앞의 책, 163쪽)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과 모방 신부 서한에 나오는 성의회·매괴회 관련 내용

필자는 모방 신부 서한의 역주 작업에 참여하면서 2통의 서한에 나오는 성의회·매괴회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브뤼기에르 주교가 받은 ‘특별권한’과 브뤼기에르 주교의 서한에서 ‘성의회’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831년 7월 17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포교성(현재 북음화뒀을 통해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특별권한’ 16항목을 부여했는데 그중 제9항목이 ‘신자들을 성의회에 가입시키고 스카폴라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162쪽) 즉, 1831년부터 주교에게 성의회 설립의 권한(의무)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교는 1832년 10월 21일 파리 외방전교회 마카오 대표부에서 칙서[조선대목구 설정과 조선대목구장 임명과 ‘특별권한’이 담긴 문서를 받았습니니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1832년 12월 포교성 마카오 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신이 받은 ‘특별권한’ 중 견진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조선 파견 선교사제들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230쪽) 조선에 들어가는 선교사제들은 모두 주교와 마찬가지로 ‘성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33년 4월 18일 중국 복건성 복주에서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235~236쪽)에서는 브뤼기에르 주교는 가르멜회 재속 회원(성의회 회원)을 위한 스카폴라를 조선에서 구할 수 없는 양모(羊毛)가 아니라 비단이나 면 같은 천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를 볼 때 주교가 조선에서 성의회를 설립하려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35년 10월 20일,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입국을 앞두고 병사했지만, 그 뒤를 이어 1836년 1월 조선에 입국한 모방 신부는 대목구장 직무 대행이자 조선 파견 선교사제로서 성의회 설립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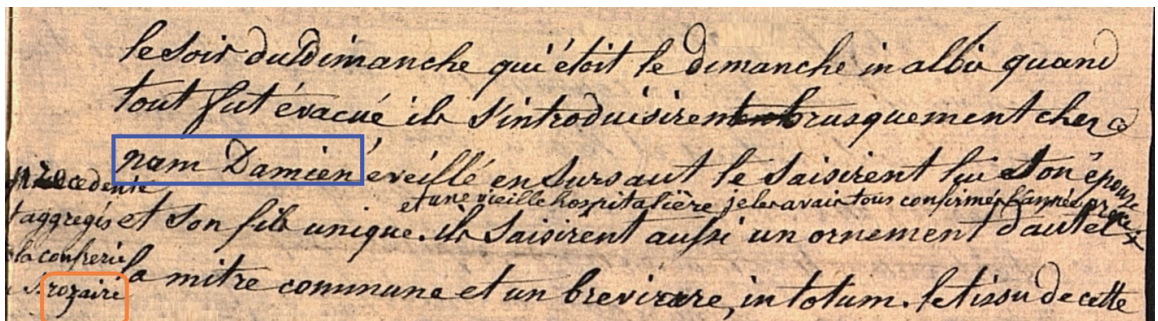
모방 신부가 1837년 11월 26일 조선 서울에서 교황청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AMEP, Vol.1260, ff.120~123]에 성의회와 매괴회 기록이 나옵니다. 모방 신부는 조선 입국 이전에 브뤼기에르 주교로부터 ‘특별권한’을 받았는데, 입국 이후 사목 활동하면서 느꼈던 의문점을 포교성 장관 추기경

에게 서한으로 문의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은 신자의 보속(補贖)을 면제해 주는 대사(大赦)와 관련된 질문에서 성의회와 매괴회를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1837년 이전에 모방 신부가 두 단체를 조선에 설립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매괴회 설립은 브뤼기에르 주교가 부여받은 ‘특별권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모방 신부의 서한을 보면 성의회와 같이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36년 입국한 후 서울과 지방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한 모방 신부가 신자들을 성의회와 매괴회에 입회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36년부터 성의회와 매괴회가 설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839년 천주교 박해 당시 이미 붙잡힌 앵베르 주교의 지시로 모방 신부는 샤스탕 신부와 함께 자수하기로 했는데, 8~9월에 거쳐 마지막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모방 신부는 앵베르 주교의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해 과정과 순교자 관련 내용을 수정·추가했습니다.

모방 신부의 마지막 서한에 의하면, 1839년 4월 7일 저녁에 포졸들이 남명혁의 집에 쳐들어가 잠을 자던 남명혁과 그의 아내[이연희 마리아], 아들, 나이 많은 여종을 체포했습니다. 이 기록도 앵베르 주교의 ‘박해 보고서’를 옮긴 것이지만, 여기에 모방 신부가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모방 신부가 작년(1838년)에 남명혁 식구 모두에게 견진성사를 주고 그들을 ‘매괴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AMEP, Vol.1260, f.163]



[그림3] 모방 신부가 1839년 8~9월에 쓴 마지막 서한(A-MEP, Vol.1260, f.163)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해일기』·『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는 남명혁이 ‘성의회’ 회원이라고 나오는데, 모방 신부의 서한에는 남명혁뿐 아니라 아내·아들·여종까지 모두 ‘매괴회’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시복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오 바실리오는 남명혁 자신이 성의회 회원이라고 한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고, 모방 신부는 자기가 직접 성사를 베풀고 매괴회에 가입시켰다는 기록했습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볼 때 남명혁과 그 가족이 성의회와 매괴회에 모두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방 신부의 서한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성의회·매괴회의 설립 시기와 설립 주체, 회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목구장 직무 대행이자 조선 파견 선교사제로서 모방 신부는 ‘특별권한’ 제 9항목에 따라 1836년 조선 입국 이후 성의회와 매괴회를 설립하고 신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을 것입니다. 1837년 11월 26일에 포교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39년 순교자 남명혁은 평소에도 스스로 성의회 회원이라고 했고, 모방 신부는 마지막 서한에서 자

신이 1838년에 남명혁과 그 가족을 매교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모방 신부의 라틴어 서한 : 신학생 서약서(4)

지난 83~85호에서 모방 신부의 라틴어 서한인 ‘신학생 서약서’[AMEP V.1260, f.99]의 기존 편집본들에 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첫번째 편집본(1996)과 지정환·최승룡의 편집본(2006)에 이어서, 본 연구소에서는 2018년에 해당 서한의 판독과 번역을 『상교우서』 58호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생 서약서’의 비판정본(critical edition)을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편집본에 대해서는 다음에 『모방 신부 서한』에 수록할 비판정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신학생 서약서’의 가장 최근 편집본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작년(2021)에 개정·간행한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64·66쪽에 수록된 편집본입니다. 저는 이 서한의 편집·번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교회사연구소 초판의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누락되었던 부분이 판독·수록되었고(‘...에 계시는 조선인 신학교 교장 신부’, 십자가 표시), 판독 오류가 바로잡혀졌으며(‘경기도’, ‘다락골’, ‘면천 솔피’, ‘2일’), 임의로 삽입되었던 문장부호가 삭제되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초판의 오류가 그대로 유지된 곳도 볼 수 있습니다. ‘Kin’을 ‘Kim’으로 판독한 것이 그대로이며, 판독이 누락되었던 두 곳(문서정리자들이 쓴 발신연원일 ‘1836’과 ‘12월 2일’, 모방 신부가 쓴 ‘D.N.J.Ch.’)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발신일(1836년 12월 3일)은 서한 속에 나오는 날짜(1836년 12월 2일)와 서로 다른데,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서한 수신인 및 성호 경은 모두 모방 신부 본인이 쓴 부분이지만 본문과 다른 서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관해서 연구자나 일반 독자가 의문을 갖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1호, 9월 30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